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정기총회 개최

세계기독교간호재단(총회장 김명자)의 제10차 정기총회 및 부흥집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에서 열렸다.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은 1998년 4월 18일 LA에서 원로간호사들이 중심이 돼 창립된 선교단체로 간호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창립했다.

재단이 창립된 계기는 1998년 한국이 IMF로 거리에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북한은 고난의 행군 등으로 300만명이 굶어죽어가며 탈북이 시작되던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와 보수를 받으며 일해온 간호사들이 사

람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됐다.

15일에는 이상만 교수가 '최근 북한의 변화와 새로운 남북관계' '한반도 통일의 로드맵과 통일선교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상만 교수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로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이사장, 북한정책포럼 회장, 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평통자문회의 상임 위원, 통일연구원 고문, 북한연구학회 회장, 앨라배마 주립대학 경영대 석좌교수, 베트남 국가계획위원회 경제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문의: (310)324-8620, wcnf@hotmail.com



세계기독교간호재단(총회장 김명자)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하와이에서 제10차 정기총회 및 부흥집회를 개최했다.